

北韓社會에 대한 觀點*

— 訪問記를 中心으로 —

朴 商 台

머 릿 말

현재 우리 민족은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의 상황에 처해있다. 1990년 7월 20일 노태우 대통령은 해방 45주년을 맞는 8월 15일을 전후한 5일간을 민족대교류의 기간으로 선포하고 이 기간 중 판문점을 통로로 열어 놓고 북한동포들을 제한없이 받아들이고 우리 국민 누구라도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북한측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호교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북한동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면개방을 일방적으로 실천하겠다고 했다.¹⁾ 동서독의 통일, 동구와 소련의 개방에 비해 남북한 관계는 그 변화의 속도가 대단히 더딘 느낌도 있으나 불과 몇 년전에 비해 볼 때 이와같은 성명은 그 결실 여부는 제쳐 두고라도 격세지감을 갖게 한다.

북한사회에 관해서는 그 동안 상당히 많은 수의 논문과 저서가 나와 있다. 이들은 대부분 발표된 공식문서나 자료를 이용한 것들이다.²⁾ 다른 한편, 북한의 실상을 방문경험을 토대로 체험기 형식으로 써놓은 글들이 최

* 이 論文은 1989년도 문교부 공산권연구지원금을 받아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1) 朝鮮日報, 1990. 7. 21일자 제1면 머릿기사.

2) 최근 3년이내의 저서로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강정구 편, 북한의 사회(서울: 율유문화사, 1990)

이상우 외, 북한40년(서울: 율유문화사, 1988)

이은죽, 북한사회연구(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많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크게 두 부류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는 귀순자·망명자·친서방 외교관·신문기자 등이 엮어낸 것들로서 서방식의 체제와 논리를 가지고 북한의 헛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북한을 세습 왕국으로 그리고, 자유없는 나라의 대표적 케이스로 지적하는 글들이다. 둘째는 객관적·주체적으로 북한을 북한식의 논리를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는 내재적 접근법을 이용한 글들이다. 즉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이고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목적과 이념에 입각하여 북한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비판해야 한다는 것이다.³⁾ 그 결과 북한을 “지상낙원”, “노동자의 천국” 등으로 표현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북한을 “노동수용소”, “金父子왕국” 등으로 단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사회를 보는 관점에 따라 우리가 오도될 가능성이 얼마나 큰가를 밝히기 위해 체험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사용한 자료는 1980년대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의 방문기를 중심으로 했으며 그 이전에 체험한 것을 체험기 형식으로 최근에 출판된 단행본도 포함시켰다. 방문기를 쓴 저자들 중에는 학자도 있으나 언론계와 종교계 출신이 많았다. 자료 선정에 있어 가능한한 모든 방문기를 포함시켜 그 대표성을 높이고자 했다. 그러나, 외국인 저자들이 기술한 방문기의 경우 우리말로 번역된 것에 있어 번역자의 미숙이나 편견을 제거할 수 없었음을 미리 밝혀 둔다.

I. 主體思想과 政治

1. 主體思想

주체사상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긍정적으로 기술한 방문기는 루이제 린저였다. 린저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통찰력에 의해 생겨나기에 그 기초는 철학이라기 보다는 실제 삶에서 얻어진 것을 터득해서 얻은 것으로서, 사회주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지침이

3) 강정구, 앞의 책, p.23.

된다. 또한 김일성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차이점은 김일성이 혁명에 대한 사적유물론이란 개념 대신 규범적이고 관념론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를 그대로 따서 현실화시키거나 변형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일성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관념론적 철학을 지니고 있기에 인간이 그의 유토피아였고 신조였다. 그러므로 그는 철저하게 인간적이었다. 또한 주체는 흔히 말하는 자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실현도 의미하기에 국제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면서 동시에 그것으로 부터의 이탈을 보여준다. 즉, 타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거부함으로써 국제마르크스주의와의 명백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⁴⁾

최익환도 그의 방문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마르크스주의를 계승하나 마르크스주의에서 더 발전된 사상이며 정통마르크스주의의 테두리를 넘어 섰고 정통마르크스주의를 가지고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 준다는 것이다. 더욱 명백해진 것은 북쪽 사람들이 민족자주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으며, 사회생활 전반에서 철저하게 자주노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⁵⁾ 최익환은 더 나아가 대화를 통해 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이 어떤 면에서 새로운가, 창조적인가, 그리고 민족사적 필연성이 무엇인가 하는데 대하여 이해를 갖게 되었다고 하며 동시에 철학으로서의 주체사상은 앞으로도 더 많은 지적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⁶⁾

송석중도 주체사상의 관념적 측면을 그 장점으로 들고 있다. “나는 무조건 북한사람들은 다 유물론자로 생각해 왔는데, 그와는 반대로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주체사상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인데 그 이유는 인간이 정신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그들은 모든 일을 주체사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자신의 긍지와 소망을 품고 열심히

4) 루이제 런저, 한민 옮김, 또하나의 祖國 : 루이제 런저의 북한방문기(서울 : 공동체, 1988), pp.105-109.

5) 최익환, “귀향”, 양은식 편저, 분단을 뛰어넘어 (서울 : 힘, 1988), pp.19-59, pp. 27 참조.

6) 위의 글, pp.54-55 참조.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들의 진실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⁷⁾

조명훈은 이북의 현실은 주체사상의 이념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주체사상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⁸⁾ “김일성은 주체사상이 종국적으로 실패한 것을 조금도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남이 정치, 경제적으로 열강의 속국이나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을 시절에 그는 고독하게, 그러나 과감하게 주체노선의 견지를 위하여 애썼던 것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역사가들은 우리 민족사에서 그에게 공정한 위치와 평가를 주어야 할 것이다. 그의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실패는 고귀한 거름이 되어 우리 거래의 종합적인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⁹⁾

위와 같은 주체사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보적 태도를 견지한 글들이 나와 있다.

박한식은 주체사상을 신민족주의라 지칭하고 있다. 즉, 인류문명은 한반도에서 기원되었으며 한민족은 모든 압제받는 인민들을 제국주의의 사슬에서 해방시켜야만 하는 사명을 가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역사를 재기술하고 있다. 이는 통일교 문선명교주의 민족관을 방불케하는 점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¹⁰⁾ 또한 그는 주체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객관적 여건과 주관적 여건을 이해해야 한다. 객관적 여건 즉, 주체사상이 왜 북한에서 생겨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해 한반도의 민족수난사로 설명하기도 한다. 주관적 여건이란 북한 사람들 고유의 사고방식이므로 이해하기 어려우나 그들의 사고를 일단 받아들임으로써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¹⁾

7) 송석중, “보고 듣고 느낀대로”, 양은식 편저, 위의 책, pp.191-237, p.233 참조.

8) 조명훈, 북녘일기(서울: 산하, 1988) pp.112-113.

9) 위의 책, p.243.

10) 박한식, “주체사상이란 무엇인가”, 양성철, 박한식 편저, 북한기행, (서울: 한울, 1986), pp.115-137, p.124 참조.

11) 박한식, “북한의 주체사상”, 한국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원, 해외동포가 본 북한과 그들의 통일논의, (서울: 민중사, 1988), pp.63-70, pp.65-66 참조.

김동수는 주체사상의 공헌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그 이론적 제약을 지적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민족의 자주성과 긍지를 생취하는데 커다란 정신적 기여를 했으며 우리민족과 다른 약소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크게 공헌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인본주의적이면서도 인도사상에 어긋나는 면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그 사상이 개인 또는 개체를 경시 내지 멸시한다는 사실이다.¹²⁾

80년대에 들어와 주체사상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것으로서 김원조와 김만철의 견해를 들 수 있다. 김원조는 주체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주체사상을 장식하기 위해 어째서 이처럼 굉장한 고딕형식의 탐을 세운다거나, 거대한 분수짜위를 만들거나 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북한의 대중, 세계 대중이 마음 밑바닥에서 부터 주체사상을 지도 사상이나 지도이념으로 믿고, 존경하고, 받들고 있달것 같으면 어째서 이토록 막대한 돈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된단 말인가? 이것은 주체사상이란 것이 돈을 듬뿍 투입하지 않는다면 소위 ‘사상’으로서의 존재를 주장하거나, 세계의 사상시장에 팔아볼 길이 없음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닌가?”¹³⁾

김만철의 견해로 출판된 책에서 주체사상은 가장 혹평을 받고 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 개인숭배를 통한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철저한 사회동원 체제를 뒷받침하여 경제건설과 국방력 강화를 꾀하는 한편, 중·소분쟁에서 중립적 노선을 유지하면서 실리를 추구해 보겠다는 알팍한 발상에서 나온 체변적 이론이다. 결국 김일성 독재체제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이론적 체계에 지나지 않는다. 김일성 독재체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기본계층인 노동자, 농민이 아니라 핵심계층이다. 김만철에 의하면 주체사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60년대 이전에 출판된 모든 저서에 대한 검열을 시작했다 한다. 이 검열 대상에는 공산당의 바이블이라는 「변증법적 유물론」,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론」은 물론 「초기 김일성 선집」까지도 포함된다.¹⁴⁾

12) 김동수, “이북의 현실과 통일과제”, 양은식 편저, 앞의 책, pp.238-262, p.254 참조.

13) 金元祚 著, 方吉榮 譯, 凍土의 共和國, (서울: 한국방송사업단, 1984), p.115.

14) 文龍壽, 아 따뜻한 南쪽나라 (서울: 知文社, 1987), pp.174-175.

결론적으로 주체사상도 하나의 이론인 이상 절대적 진리는 아니다. 이 이론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더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우리는 북한의 이데올로기 체계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金日成 個人崇拜

김일성 개인에 대한 숭배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사회의 일상화된 현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많은 방문자들은 그 광범한 보편성에 대해 놀라고 있다. 한 외국인 교수는 “나는 한번도 그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마치 2주일 동안 그 사람 곁에서 보낸 것 같았다. 내가 평양공항의 출구를 나서던 그 순간부터 그는 가는곳마다 나를 따라 다녔다. 그는 마치 항시도 없어서는 안될 공기처럼 왕국의 도처에 존재하는 파라오이자 지상의 영웅인 동시에 半神이었다.”¹⁵⁾

특히 독립운동에 관한 김일성의 절대적 지위에 대해 방문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혁명박물관은 김일성의 독립운동에 관한 것으로 일관되어 있었는데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이었으므로 민족주의자가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있었으나 사회주의 혁명에 참여했던 다른 애국자가 많았을 터인데 그들이 빠져있으나 박물관의 내용이 편중된 것이 아닌가 의문이 생겼다.”¹⁶⁾

또한 “극단적인 김일성주의는 민족사관마저 편협한 특수 해석에 종속시키는 듯했다. 항일투쟁은 김일성 장군을 중심으로 한 무력투쟁이 전부일 정도로 소개되어 있고 민족주의 계열의 항일운동은 전혀 없을 정도로 곡해되어 있다.”¹⁷⁾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는 그 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그러나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 충성은 보편적이 아니고 외국에서의 김일성 찬양도 모두가 광고에 불과함을 지적한 사람도 있다. “수령과 지도자가 계속 언급

15) 클레멘스-아우그스트 안드레아, “주체사상의 나라 북한을 가다” 무이제 린저, 앞의 책, pp.299-316, p.303 참조.

16) 송석중, 앞의 글, pp.216-217.

17) 김동수, 앞의 글, p.253 참조.

되는 것은 북한사람들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뿐이었고 다소나마 비공식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들에 대한 찬사를 들을 수 없었다. 또한 외국의 매스컴에 돈을 주고 광고한 것을 국제 뉴스로서 각종 미디어에 보도하며, 그것이 광고라는 것을 해외뉴스에 밝은 사람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북한의 폐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¹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 및 개인숭배에 대한 방문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여러 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개인숭배가 북한사회에서 가능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이도 있다. “추상적 개념은 소수의 지성인에게는 힘이 될 수 있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무력하다. 철학과 도덕보다는 종교가 훨씬 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교리때문이 아니라 의인화된 신의 존재 때문일 것이다. 사회주의 이념과 정책보다는 훌륭한 지도자 덕택에 더 잘살게 되었다는 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¹⁹⁾

또한 개인숭배의 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기도 했다. “사회생활의 어느 분야에 가나 주석의 현직교시를 써붙인 액자를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데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북쪽사람과 김일성 주석의 관계는 한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절대적 권력자에 대한 두말없는 복종에는 일관된 항일투쟁과, 전쟁과 건설에서 보여준 비범한 영도력에 대한 진정한 존경과 신뢰가 있고, 여기에 이제는 연만한 가부장이 풍기는 위엄과 자애가 더하여졌다.”²⁰⁾

안동일은 월북작가 이기영씨 부인 홍울순 여사와의 인터뷰에서 “수령님의 은혜”로 꿈같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말에 처음 당황했으나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이 노인이 지어먹은 마음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확고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²¹⁾

18) 고병철, “혁명그대”, 양성철, 박한식 편저, 앞의 책, pp.51-68, pp.51-54 참조.

19) 송석중, 앞의 글, p.236.

20) 최익환, 앞의 글, pp.37-38.

21) 안동일, 갈라진 45년 가서본 반쪽(서울: 돌베개, 1990), pp.166.

위와 같은 관점들을 가지고 미루어 볼 때, 카리스마적인 김일성 숭배사상은 북한을 움직이는 권위의 기초가 되어 있고, 더 나아가 확고한 신념체계로서 북한사회의 주민들에게 개인차는 있겠으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3. 民族的(主體的) 民主主義와 權力繼承

〈국제친선 전람관〉을 방문하여 각국의 수반들이 보낸 선물을 전시한 것을 보고 이것들이 값나가는 것이라기 보다 토착적인 것으로 소박하고 민중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느꼈다. 북한이 제3세계의 비동맹국가에 속하며 주체적으로(주체사상으로) 자립한 나라의 모범으로 추앙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²²⁾

북한의 자주적 건설이 인상적이었으며 다른나라의 모범으로까지 보였다는 위와 같은 북한 정치체계에 대한 긍정적 견해보다는 북한의 독단적이고 교조적 민족주의는 주민의 愚民化와 知的인 퇴보, 반주체적 인간의 규격화를 초래한다고 지적된다.

“오직 자신들만이 진실한 민족주의자라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자기들만이 옳고, 자기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자들은 경멸의 대상이 되고 비도덕적으로 여기는 독선적인 태도를 형성했다. 이것은 체제를 유지하고 주민을 통치하는 데에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자신을 검토하는 기회와 능력을 상실케하여 知的인 퇴보를 가져왔다.”²³⁾ 즉 북한이 정치적으로 유례없는 통합을 달성했으나 이것은 오히려 다양성의 부족으로 독창적인 사고에 의한 혁신적인 행위를 막아 주체의 이상향과 배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²⁴⁾

그 결과 국민들은 그들의 인권이 억압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된

22) 홍승근, “미완의 귀향일기”, 양은식 편저, 앞의 책, pp.112-180, pp.154-155 참조.

23) 이만우, “북한인민의 자화상”, 양성출, 박한식 편저, 앞의 책, pp.139-162, p.145 참조.

24) 김병익, 고병철 “기행을 마치고”, 위의 책, pp.219-233, pp.222-224.

것이다. 한 외국기자는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억양에 의해서 분류되고, 미국에서는 물질적 부에 의해서 분류된다면, 북한에서는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에 따라 분류된다고 지적하며 맹목적 충성을 꼬집었다.²⁵⁾

북한에는 개인의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평등한 사회도 아니다. 40년 동안 인큐베이터 속에서 살아온 북한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없었기에 정치, 경제, 사회적 면역성을 잃었다. 외국의 영향이 갑자기 침투하면 북한의 체제는 흔들릴 것이다. 40년동안 지배계층의 허위선전에 의한 통치는 북한 주민의 비판력 부족, 원시적인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지배층의 자기 기만으로 북한의 장래를 위협하고 있다.²⁶⁾ 자유란 이 나라에선 민족의 독립이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따져야지 결코 개별인 권리가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의미하지 않는다.²⁷⁾

이와 같은 자유없는 사회인 북한식 독재체제를 서구 정당정치 체제와 비교하여 정당화 시킨 것은 흥미롭다. 즉,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개인은 자유롭지 못하며, 그곳에서는 정부에 의해 조작된 이른바 법률적 억압이 존재한다. 서구의 국회에서는 엄청난 시간, 정력 그리고 국민의 능력 등이 정당간의 싸움 속에서 허비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²⁸⁾

김일성-김정일로의 권력계승은 서방언론에서 독재의 본보기로 자주 운위되고 있다. 그러나 린저같은 방문자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옹호하고 있다. “김일성이 이 나라의 인민과 이데올로기를 잘 알고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지에 염려를 기울이는 사람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고 싶어하는 것은, 자기가 죽은 이후 이 나라가 분열되어 파멸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데서 나온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²⁹⁾

25) Kristof, Nicholas D., “위대한 指導者로부터 친애하는 指導者로”, 외국기자들이 본 북한(문화공보부, 1989), pp.89-100, pp.90-91 참조.

26) 이만우, 앞의 글, pp.160-161.

27) Pons, P. “平壤 ‘위대한 수령’의 首都”, 외국 기자들이 본 북한, 앞의 책, pp. 113-116, p.116.

28) 루이제 린저, 앞의 책, pp.42-43.

29) 루이제 린저, 위의 책, p.27.

또한 북한의 안내원들도 소련에서는 스탈린같은 위대한 계승자가 없었고 후르시초프같은 저질의 지도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소련을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한다. 위대한 지도자의 계승은 위대한 지도자들로부터 가장 오랫동안 교육을 받은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맡아야 한다고 한다.³⁰⁾

후계자 문제에 대해 왕조세습 등의 비난에 대해 그들이 개의치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평소에 우리가 잘 되기를 빌어 왔던 동지들로부터 그런 비난이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언제나 우리를 망해라 망해라 했던 적들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오히려 잘 된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못 마땅해 하는구나 하고 생각한다.”³¹⁾

II. 經濟와 住民生活

북한 경제와 주민생활에 대한 연구도 최근 많이 나오고 있다.³²⁾ 이들의 한결같은 지적은 고도의 중앙집권적 관리방법의 문제점, 생필품의 부족과 비리, 낮은 생활수준, 자립의 한계 등이다. 이 장에서는 위와 같은 4가지 문제에 대한 방문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중앙집권적 관리방법과 생산성 문제

북한은 정치적·사상적인 면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경제적 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료조직이 비대하고 고도로 중앙집권화되어 있어 가장 효과적인 경제관리 방법의 선택 보상체계가 불분명하여 철저한 감독과 계속적인 정치성의 주입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개개인들로 하여금 최대한 기여하도록 하는 유인이 부족하며, 빈틈없이 조직화되고 고도로 경직화된 국가기관이 인간의 창조적 발휘와 경제의 원활한 운용

30) 이만우, 앞의 글, p.151.

31) 안동일, 앞의 책, p.270.

32) 최근의 연구로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이태욱 편, 북한의 경제(서울: 율유문화사, 1990)

을 방해하고 있는 듯 했다.³³⁾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의 원칙에 바탕하여 적당히 게으름 피우면서 일해간다는 피가 생겨난다.³⁴⁾

위와 같은 경제운용상의 문제점 즉, 관료적 경직성과 생산성 향상의 문제가 지적되는 한편 생산성의 문제는 독립채산제와 노동에 따른 보수배당과 판매에 따른 배당으로 해결하게 되었다고 한다. 즉, 철저한 개인노동량 평가가 이루어진 후 분배되는 북한 협동농장은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어 하나의 기업과 같다는 것이다.³⁵⁾ 북한에도 인센티브가 있다. 하루 표준일정량의 3배를 할 경우 그에 따라 배당이 나온다. 이것은 최근의 변화이다. 특히 협동조합에서 하는 장사는 이익에 따라 배당이 나오므로 자유세계의 상인들처럼 판매에 재량도 따르고 판매수익을 올리려고 노력한다.³⁶⁾

다른 한편, 관료적 경직성 보다는 북한경제의 종합발전체제와 대중성을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 즉, 북한의 경제는 종합적이다. 한 방면에 치우치지 않고 다방면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북한 경제는 공업과 농업, 중공업과 경공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종합발전체제는 소련같은 선진국에서도 불가능하다. 북한경제의 특징은 대중적이다. 즉, 생산의 목적이 근로대중을 위해서이다. 정부, 관리, 지도원은 민중의 복리를 위한 존재이다.³⁷⁾

2. 生必品の 부족과 非理

한 외국기자는 평양축전기간 중 백화점에 한 달 전만 해도 없었던 상품이 가득 차 있었고, 이와 같은 평양의 화려함에 비해 시골은 너무 대조적으로 발전이 낙후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북한의 집권자들도 각종 소비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주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각종 소비재

33) 이채진, “평등사회의 참모습”, 양성출, 박한식 편저, 앞의 책, pp.69-89, p.71 참조.

34) 金元群, 앞의 책, p.193.

35) 안동일, 앞의 책, p.44.

36) 한국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원, 앞의 책, pp.126-127.

37) 선우학원, “대동강의 기적”, 양은식 편저, 앞의 책, pp.284-303, p.298.

육구를, 국가가 통제하는 무능력한 산업계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국가로서 높은 생활수준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의 기자에게 “스웨덴도 우리처럼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³⁸⁾고 한 안내원의 동정어린 말은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평양개신문 아래에 생필품과 사치품을 구비한 여러 점포들이 있었으나 이들은 진열용이었기에 북한사람들은 이 물건들을 슬프게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³⁹⁾는 방문기는 북한의 실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돈은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없기에 시계, 카메라, 라디오 등을 뇌물로 이용한다. 입학시기가 되면 이들 물건이 일본에 있는 친척으로부터 많이 들어 온다고 한다.⁴⁰⁾

물자가 결정적으로 부족하기에 암시장이 극성하게 된다. 북한에서는 배급이외에는 공정가격대로 매매되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다. 암시장을 통해 도계계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통행증명서를 가진 당과 근로단체 여성동맹의 간부들이나 거류외국인 같은 외교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몇 배의 이익을 챙긴다.⁴¹⁾ 생필품 부족은 모든 방문기 저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이웃집 모두가 가지지 않은 냉장고를 굳이 가지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⁴²⁾ 지적으로 아직은 생필품 부족이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3. 生活水準

방문기자들은 생활수준의 한 단면인 영양상태를 보여주는 체격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북한사람들을 평균해 본다면 재일동포보다 키가 작을 뿐만 아니라 몸집이 가냘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⁴³⁾ 공화국 국민

38) Gunnarsson, B., “평양이 서울을 능가할 것인가”, 외국기자들이 본 북한, 앞의 책, p.21 참조.

39) Maass, P. “일사분란하게 祝典에 임하는 北韓人들”, 위의 책, p.31 참조.

40) 文龍壽, 앞의 책, p.107 참조.

41) 안동일, 앞의 책, p.44.

42) 金元祚, 앞의 책, pp.313-315.

43) 金元祚, 위의 책, p.49.

의 체격과 관련해 여자의 초경기가 평균 18세라는 외국인 의사의 말을 들었다.⁴⁴⁾

위와 같은 사실은 그 관찰의 타당성과 신빙성이 문제되었으나, 다른 발전된 나라에 비해 생활수준이 비교적 열악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렇다고 북한주민이 험벗고 굶주린다는 표현은 과장된 것이다. 북한관리들에게 서구에 비해 북한의 생활수준이 낮다고 말하면 그들은 그대신 북한에는 높은 수준의 도덕이 지배하고 사람들은 범죄를 모르며 실업, 청소년 문제라든가 가정파탄 등이 전혀 없다고 응수한다.⁴⁵⁾ 더구나 북한은 “화폐경제의 환상”을 극복했다는 것이다. 즉, 소비의 문제는 국가 관리하에 놓여 있어 집단소비와 개인소비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집단소비는 사치스럽게, 개인소비는 검소하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⁶⁾

한 외국기자는 북한의 상대적 낙후를 한국의 비약적인 발전 탓으로 돌리고 있다. “사실상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북한이 이룩한 경제적 성과는 최근까지 매우 인상적이었지만 북한이 20세기의 경제기적을 이룩한 국가인 한국과 접경하여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었다. 북한은 필연적으로 남·북한 비교에 의해 굴욕을 감수하여야 한다.”⁴⁷⁾

생활수준을 삶의 질로 환원하여 북한을 다시 평가한 경우도 있다. “고도로 문명화된 서구세계 특히 미국에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지는 않다. 기술은 노동을 쉽게 하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기여하지만 삶을 더 유쾌하고 아름답게 하지는 않는다. 여기엔 수질오염과 공해문제가 없다. 여기서는 인간과 노동의 소위가 없으며 인간간의 냉담함도 없다. 이 나라는 참으로 인간적이다.”⁴⁸⁾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느냐의 여부로 북한을 이 시대의 역설적 모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성경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면서도 실지로 기독교가 세운 나라는 노

44) 李佑泓, 北韓四年體驗的報告(서울: 新紀元社, 1989), pp.21-24.

45) 루이제 린저, 앞의 책, pp.269-270.

46) Pons, P., 앞의 글, pp.113-114.

47) Kristof., 앞의 글, pp.96-97.

48) 루이제 린저, 앞의 책, pp.225-226.

동자를 하대하고, 소수 엘리트가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것은 큰 모순이다. 북한의 사회주의는 확실히 기독교와 그 문화에 대한 이 시대의 경고이다.”⁴⁹⁾

4. 自立의 限界

외화가 필요한 북한은 외화상점을 통해 외화획득에 노력하고 있다. “주체사상탑’이 맞은 편 기슭에 보이는 ‘외화상점’에서 우리들은 기이하게도 ‘이또오 히로부미’의 돈이 활개치고, 어깨를 으쓱대는 거짓말 같은 참말의 광경을 보게 되었다.” 또한 “해외동포가 찾아오면 아파트 수리 등 ‘특혜’를 받게 된다.”⁵⁰⁾

북한이 내세우는 자립경제의 어려움을 우리는 다음에서 읽을 수 있다. “옥수수 트럭’은 북한이 자랑하여 마지않던 ‘자립경제의 정신’이 어떠한 것인가를 똑똑히 나타내고 있다. 개솔린이 없으면 석탄으로, 석탄이 없으면 옥수수대를 원료로 차를 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립경제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차에 옥수수를 먹이는 일이다. 그러나 차는 소가 아니다. 옥수수대를 먹고 제대로 달릴 수가 있을 턱이 없다.”⁵¹⁾

외자와 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합영법은 중공에 자극받아 시도한 것이었으나 실제 효과가 크지 않았다. 왜냐하면 북한은 체계적으로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활동하기에 이 합영법은 현실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주경제는 실상 불가능했고 소련과의 협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김일성의 수차에 걸친 소련방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합영법 자체는 자본주의적인 발상이므로 이윤이 생겨야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적 가치와 이윤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에 성공이 어렵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체제의 경직성과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압력 등의 작용이 이의 성공을 저지하고 있다.”⁵²⁾ 한마디로 북한의 기본적 경제이념은 경제발전을 가능한한 자력

49) 홍동근, 앞의 글, p.167.

50) 金元祚, 앞의 책, p.181 및 pp.212-213 참조.

51) 위의 책, pp.251-252.

52) 김영환, “북한의 경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앞의 책, pp.80-86.

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 점이 북한측 자부심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경제성장의 최대 장애요인이 되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Ⅲ. 社會 · 文化

1. 家族

북한 가족의 구조와 사회적 기능, 친족관계 등에 대한 기존 사회학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족은 북한사회의 기본단위로 존재하고 있으며 친족관계나 제도적측면은 여성노동 참여의 증가와 이에 대한 이념적·제도적 뒷받침으로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었으나 전통적 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판정할만한 흔적을 여러 모로 찾아내고 있다.⁵³⁾

북한가족에 전통적요소가 존재했음은 이미 오래전 북한을 방문했던 일본기자가 밝혀놓고 있다. “김일성 체제하에서 전통적인 생활양식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러나 실제 본 결과 핵가족과 개인주의 풍조가 널리 퍼져있는 일본사람의 눈에는 오히려 「유교적」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고루한 점까지 느꼈다.”⁵⁴⁾ 최근 방문했던 재일 한국인 기자에 의하면 동성동본간의 결혼을 금기시하는 전통화 풍습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한다. 그리고 진보적인 사회이념에도 불구하고 평장히 전통적이어서 가부장제와 대가족제도가 그대로 있고,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을 중시하며, 여자의 역할로서 집안살림과 아이 기르는 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여긴다. 또한 노부모를 모시고 살며, 사회적으로 부모에 대한 존경을 강조하고 있었다.⁵⁵⁾

출실성분에 따른 가족(예컨대 월남한 사람의 가족 등)의 차별대우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음 글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가

53) 李溫竹, 북한사회연구(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pp.229-231.

54) “외국언론인들이 본 북한”, 통일정책(1979. 7.), p.237.

55) 백숙자, “북한의 여성”, 한국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소, 앞의 책, pp.94-95.

난한 나라에서 동생들이 성분이 좋지 못하여 제대로 학교교육도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 기독교 신앙 등 걱정이 많았으나 80고령의 어머니가 꿈고 깨끗한데 놀랐다. 동생들이 모두 공업대학을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⁵⁶⁾ 나의 월남으로 가족이 피해를 입지나 않을까 늘 걱정했으나 같이 월남한 사촌형의 동생은 미생물학 분야에서 제일 처음으로 국가박사학위를 받았다. 차별이 있었다면 그게 가능했겠는가?”⁵⁷⁾

남녀 성차별에 대한 구조적 모순은 상존하고 있으나 여성에 대한 性的 착취와 性的 상품화가 없다는 것을 높이 평가한 것을 자주 보게된다. “비록 여성들이 예전처럼 가정을 꾸리고 있고, 직장과 가정의 이중부담을 감수해야 하며 고등교육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여성은 적지만 똑같은 인간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이었다. 노동대가의 균등, 육아와 가사노동의 편의를 위한 시설 및 특혜가 잘 되어있고 정책적으로 남녀의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이 있고 여성의 적극적 참여를 권장하고 있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여성의 성적 착취와 상업화가 없다는 것이다.”⁵⁸⁾ “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는 국영 텔레비전 방송에서의 가사일을 남녀공동책임으로 해야 된다는 드라마 방송을 통한 홍보 이외에도 산아제한 및 무료 임신 중절의 대폭적인 허용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다.”⁵⁹⁾

위와 같은 방문기는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가족의 실태 즉, 합숙소와 같은 가족, 가족상호간의 비판에 의한 상호불신, 공산당이 가족에 우선되는 소단위 통제조직이란 관점에서 벗어나 그동안의 변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 宗教

많은 방문객들은 북한을 하나의 종교적 교파라고 기술하며 그것도 중세

56) 홍동근, 앞의 글, pp.156-157.

57) 최익환, 앞의 글, p.36.

58) 백숙자, 앞의 글, p.95.

59) 루이제 란저, 앞의 책, pp.81-82.

교회와 방불하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방문기에 기록하고 있다. “이곳에서의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고 북한인들의 믿음의 실체인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聖父),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聖子), 그리고 주체(聖靈)인 것이다. 북한인들의 믿음은 현실과 비현실이 뒤섞여 구별이 되지 않는다. 서구인들이 북한을 방문하면 마치 부흥회에 와있는 무신론자와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아마도 북한에 대한 가장 적절한 비유는 중세교회이다. 중세 영국과 프랑스가 신을 찬미하기 위해 십자군과 대성당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한 것처럼 북한정부도 거대한 군대와 위대한 지도자를 위한 수많은 기념물 같은 비건설적인 것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혹자는 이를 낭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북한인들은 신도들이 성전 건축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경건한 마음에서 받아들인다.”⁶⁰⁾

더 나아가 한 외국기자는 북한을 사회주의 국가라기보다 유교의 사상적 전통에 기반을 둔 절대군주국이라고도 혹평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 도서관이나 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책은 거의 90%가 김일성 또는 김정일 저작이며 영어교과서에 까지도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과 김정일 백두산 출생설은 단군신화를 연상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⁶¹⁾

주체사상에 의한 김일성 우상화로 김일성주의는 북한에서 종교를 대치하고 있다는 지적은 다음의 기록으로 알아볼 수 있다. “믿음의 형제에게 성경이나 전해주겠다고 하니 누님과 동생이 똑같이 그럴 필요없다고 해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여기서 김일성 한 분 모셨으면 그만이지 뭐를 또 모실 필요가 있는가라고 해 믿음이 들어 가려면 멀었구나 하고 느꼈다. 환영회에서 20대 초반의 조카가 김일성 노래를 부르다가 울기에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너무 감격해서 운다는 것이었다. 우상화가 이처럼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다.”⁶²⁾

다른 한편 북한에서 종교적 신념과 같은 김일성주의를 본받을 가치가 있

60) Kristof, N. D., 앞의 글, pp.89-92.

61) Sabatier, P., “聖父聖子”, 외국기자들이 본 북한, 앞의 책, pp.117-118.

62)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원, 앞의 책, p.123.

다고 주장한 기록도 있다. “가부장제라는 유교의 오랜 전통이 없었다면 김일성을 아버지로서 숭배하는 일이 가능하겠는가? 그들은 유교를 배척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러한 개인숭배는 합리적이며 노인을 공경하는 유교의 소산이 아닌가? 사람에게 대해 버릇없이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판치는 이 시대에 정중한 예절을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사람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사교예절은 미학적인 가치 뿐 아니라 도덕적인 가치도 지니고 있다.”⁶³⁾

북한은 헌법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한 가지 단서가 붙는다. “종교 행사는 미국의 영향하에서처럼 또다시 반혁명적인 의도를 추구해서는 안된다. 정확히 말해서 이전처럼 서구교회의 옷자락 아래 자본주의가 숨겨져서는 안된다.”⁶⁴⁾ 린저의 김일성과의 대담에서 김일성은 서방세계에서 북한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 사회주의를 무신론으로 보는 것에 대해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며 미국이 교회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를 재고해 보겠다는 것이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나 종교 신자수가 적거나 있다해도 명목상의 교인이 대부분임을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보여주고 있다. “북한을 방문한 영국기자에게 들은 말인데 북한주민으로, 자신은 철저한 불교신자라는 사람에게 석가모니 탄생일이 언제냐고 물으니, 한참 있다가 4월 15일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4월 15일은 김일성의 탄생일이다.”⁶⁵⁾ ‘12월 25일이 무슨 날이냐’ 물어 온세계가 다같이 축하하는 예수탄생일이라고 설명하자 ‘우린 그런 것 없어요. 그저 위대하신 어버이 수령동지가 탄생하신 날이나 명절에 모여서 노는 것이 좋지 예수가 뭘네까’라고 눈을 흘겼다.⁶⁶⁾

그러나 북한에도 서서히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그것은 1983년에 신앙성경과 찬송가, 1984년에 구역성경이 새로 출판된 것을 볼 때 1982년부터 교

63) 루이제 린저, pp.54-55 및 pp.71-72.

64) 위의 책, pp.288-289.

65) “귀순학생 김은철, 김은학이 말하는 북한실정”, 現代公論(1989. 8), p.135.

66) 이찬삼, “가서본 북한”, 中央日報, 1988. 12. 17.

회를 다시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짐작된다.⁽⁶⁷⁾

북한에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것이며, 그것은 반미와 반자본주의와 밀접히 관계되어 있었다. “선교사는 늘 우리에게 사탕을 주었지만 기독교는 상품과 돈과 서구자본주의를 몰고와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매수했다. 그 결과 우리는 미국인이 말한 것과 가져다 준 것은 모두 옳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믿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미국선교사들은 미국인이었기에 빨치산 전사에게 적대적이었다. 기독교인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손을 잡은 사람도 있었다. 요컨대 미국인의 종교가 우리의 자유에 반대되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며, 우리의 혁명에 등을 돌린 배반자였다.” “기독교교회는 콘스탄틴 1세 이래 언제나 부유한 권력자와 결탁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나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북한으로 이주했으며 하느님은 기독교인의 배신때문에 무신론자의 곁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활화된 기독교 …… 익명의 사랑의 생활을 실천하는 기독교인에게 교회가 필요할까?”⁽⁶⁸⁾

방문기 저자들 중 성직자인 방문자들은 북한에서의 신앙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라고 감탄하고 있다. “주체사상에 의해 모든 것이 규정되는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기독교인들은 정말 자기 신앙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있다.”⁽⁶⁹⁾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더우기 미국과의 전쟁하에서 그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흔히 북한의 기독교 신자를 보고 반공에 도취된 해외 기독교인들이 권력과 야합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남한 정권의 자문위원이 된 목사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 것인가?”⁽⁷⁰⁾

이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볼 때 반미사상의 변화와 더불어 북한에서도 종

67) 이승만, “북한의 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 연구원, 앞의 책, pp.98-101, pp. 98-99.

68) 루이제 린저, 앞의 책, pp.179-180 및 pp.182-183.

69) 이승만, 앞의 글, p.101.

70) 전충립, “혈육이 묻혀있는 땅”, 양은식 편저, 앞의 책, pp.60-95, pp.73-75 참조.

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단순히 배척할 수 없게 될 것을 추리할 수 있다.

3. 敎育

북한의 교육제도는 정치·경제 체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방문자들간의 공통된 관점은 북한의 교육통계자료가 없거나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교육에 대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면 ‘수치나 통계놀이는 자본주의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북한사람들은 하지 않는다’고 하며 자료미비를 변명한다. 이것은 중앙집권적 사회에 맞지 않는 자가당착적인 것이다.⁷¹⁾ 이와 같은 객관적 자료의 부족·신빙성 결여의 문제는 교육이 정치체제에 종속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한의 교육이 철저히 정부선전을 위한 세뇌교육이란 점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르다. “북한에 가서 본 사람들은 외부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북한의 선전이 북한 내에서는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전주민을 철저히 세뇌교육하여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지도층과 주민들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고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나라는 존재하기 어렵다. 이것은 세뇌교육의 일시적인 결과이며 노예의식조차 상실하게 된 결과일 뿐이다.”⁷²⁾ “하지만 그런 세뇌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가 과연 있는가? 단지 그 내용이 다를 뿐이다. 서방에 사는 우리는 소유가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도그마와, 전쟁과 군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모두 위험하다는 도식에 세뇌되어 왔다.”⁷³⁾

북한은 주체형의 새로운 사회주의 인간창조에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으며, 김일성의 지난날 업적을 끊임없이 반복 찬양하고, 이념이 경제적 하부구조와 병행한다는 주장을 통해 마르크스·레닌의 오류를 지적 합습시키

71) 양성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나”, 양성철, 박한식 편저, 앞의 책, pp. 91-113, pp.92-93.

72) 박한식, 앞의 글(양성철, 박한식 편저), p.141.

73) 루이제 편저, 앞의 책, pp.72-74.

고 있다는 점이다.⁷⁴⁾ 특히 이를 교육하기 위해 평생교육이란 이름으로 통치 엘리트집단은 계속해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 즉, 김일성의 항일 무장 활동을 유일무이한 업적으로 찬양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이 오늘날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과거 항일투사들이 겪었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며 미래의 유토피아를 강조함으로써 과거와 미래를 혼합시킨 의식의 주입으로 현재의 고통을 무마 내지 정당화시킨다.⁷⁵⁾

위와 같은 주민통제와 현실정당화에 목표를 둔 북한교육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다른 방문자는 이것이 오늘의 서양사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찬양한다. “그러나 과연 우리 서양에 현대적(민주적)인 교육방법이 있을까?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 오로지 시험을 위하여 공부하지 않는가? 나는 혼란에 빠졌다. 문명세계의 전체 교육체제는 더 이상 제대로 돼가지 않는다. 여기서는 처벌이 없다. 오직 긍정적인 자극만이 있을 뿐이다. 학생들은 별모양의 훈장만 더 탈 뿐이다. 여기에는 ‘문제아’도 없으며 불량아도 없고 품행이 단정치 못한 학생을 집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도 없다. 또한 청소년 범죄, 어린이 학대, 어린이 성적추행, 학생의 자살 사건 모두가 없다. 나는 우리 서양의 반공주의적 우익 보수정당들도 청소년들이 용감하게 자라는 것을 바라다면 북한을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⁷⁶⁾

다음 주체적 교육의 편협성과 낮은 교육성과와 수준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 학자들과의 면담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주제와 용어는 한결같이 공식적이고 판에 박힌 것이었다. 북한에서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학문도 자급자족과 자주사상인 ‘주체’에 토대를 두고 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하게도 들릴지 모르나 결과는 예상외로 편협주의에 빠져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고립된 사회에서 고도로 훈련된 사람은 편협하여 지식습득이 매우 어려워 진다.”⁷⁷⁾ “김일성 대학교의 도서관에는 서구·동구

74) 양성철, 앞의 글, pp.108-109.

75) 양성철, 위의 글, p.104.

76) 루이제 린저, 앞의 책, pp.149-151.

77) 김종익, “금기의 땅을 가다”, 양성철, 박한식 편저, 앞의 책, pp.17-50, p.43 참조.

의 최신 신문·잡지·간행물을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된 김일성 저작물만이 전시되어 있었다. 영문과, 불문과 학생들은 영·불 고전을 읽지 않고 조잡하게 번역된 김일성 전기를 읽고 있었다. 이런 교육속에서 배출되어 나오는 영문과, 불문과 학생들의 수준이나 교육의 결과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⁷⁸⁾

위와같은 비판에 대해 주체사상에 의한 교육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가 있다. “남포감문사업은 예정보다 일찍 끝날 것이라고 하여 주체사상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한다. …… 이 거창한 건설사업이 전문지식과 기술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의 북한 교육의 성과를 단적으로 평가하는 좋은 자(척도)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백년대계를 세워 착실한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는 북한의 실정을 바로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겠다.”⁷⁹⁾

북한교육의 맹점으로서 피동적 교육은 자주 지적되는 것이다. “원아나 유아들이 잘 교육된 데 감탄했다. 가장 놀란 것은 생면부지의 내가슴에 안기며 교태를 지어 보이고 내 볼에다 살짝 입마춤을 한 일이었다. 유아는 교육받은 대로 나에게 최대의 환영표시를 했지만, 나에게서는 불쾌감 밖에 주지 않았다. 이토록 진솔함을 잃어버린 측은한 어린이로 만들어 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일까?”⁸⁰⁾

그러나 다른 한편 이와같은 규격화된 교육과 대중적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양학생소년궁전〉에 갔다. …… 세계의 어느 교육시설도 과외활동을 위한 것으로 이처럼 거창할 수는 없으리라.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보는 엄청난 교육계획으로 본다. 하루 1만 명이 소년궁전에서 활동하고, 특별히 토요일엔 3만명의 학생들이 여기에서 연구하며 실습한다 했다. 서구에서 10대 애들이 마약과 강도질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또 민족은 하나이며 자주적으

78) 양성철, 앞의 글, pp.96-97.

79) 송석중, 앞의 글, pp.206-207.

80) 金元祚, 앞의 책, p.128.

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 나라, 자기 강토를 세계의 으뜸가는 낙원으로 자랑하고 찬미할 때엔 마음이 숙연해지고 두눈이 뜨거워졌다.”⁸¹⁾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의 입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두 가지를 대조·비교해 본다. 먼저, 잘 알려진 부정적인 면에 대한 관찰을 보기로 한다. “누구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도·군에 조직되어 있는 「대학생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해당자의 출신성분과 가정·친척·인척의 환경을 조사하여 적대계층이 있는가를 내사하는데 적대계층이 있으면 무조건 추천에서 제외한다. 소위 「당적원칙」과 「계급적 원칙」만을 따지고, 재능있는 인재를 길러낼 수 없게 하는 노동당의 교육정책은 학교교육 내용을 부실하게 하여 기술지식 수준이 낮으며, 북한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기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⁸²⁾

이에 대해 대학입학에서의 차별은 부정적—즉 입학을 불허하려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즉 입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대학입학전형에서 단순히 고득점자가 입학하지 않는다. 도시와 지방간의 격차를 감안하고 또 지방학생들과 제대병들의 사기를 복돋기 위해 지방학생과 제대병에 대해 특혜(약 25%의 옷점수)를 준다. 지방학생들의 성적수준, 지방의 교육환경이 평양 등 도시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당국이 도농간의 균형발전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⁸³⁾

맺 는 말

이 글에서 우리는 주로 1980년대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의 방문기를 자료로 하여 북한사회의 몇 가지 중요한 제도적인 측면에 관한 관점을 살펴보

81) 홍동근, 앞의 글, pp.143-145.

82) 俞富成, 내가 관 땅굴, (서울: 黑白文化社, 1978), pp.279-280, 및 pp.284 참조.

83) 안동일, 앞의 책, pp.76-77.

았다. 즉 정치와 이데올로기 체계로서의 주체사상, 경제와 주민생활, 그리고 가족, 종교, 교육 등 주요 사회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을 대조해 보았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사회를 정치적으로는 독재이며 융통성이 없는 사회, 경제적으로는 중앙집권적 관리방법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고, 생활필수품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사회이며, 사회적으로는 공산당 위주로 병영화되고 통제된 사회로서 극도로 규격화된 삶이 강요되는 사회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이와같은 삶에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북한을 기아도, 빈곤도, 슬럼도 없는 이상적인 사회이며 소련과 비슷한 생활수준을 영위하고 있고, 소련을 제외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주의 국가라고 극찬하고 있다. 특히 '대동강의 경제기적'으로 몇몇 주요 산업생산물의 1인당 평균생산량은 동유럽국가들의 수준에 비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⁸⁴⁾

위와 같은 상반된 관점은 우리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자유와 평등간의 긴장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는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결코 노동수용소도 아니며 지상낙원도 아니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제도를 지난 40여년간 유지·발전시켜온 하나의 민족국가이다. 북한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산주의적 독재정치와 주체사상으로 가득찬 이데올로기 체계의 독주에 있다. 이것은 다른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회의 여러 제도 중 어느 하나 또는 소수의 제도에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 이상의 지나치게 큰 권력이나 위광이 집중되어 비대해질 때 그 제도에 대한 나머지 제도의 종속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84) 안드레아스·크라체코 외,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본 북한사회(서울: 중원문화, 1990), p.7 및 p.19 참조.